

# 솔로몬, 양다리를 걸친 왕

\* 10/5(화) 열왕기상 ② 3-6장

통일왕국	분열왕국
솔로몬 1-11장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1-2장	지혜와 부귀영화 10장 솔로몬의 배교와 결과 11장
▶ <b>솔로몬의 지혜 3-4장</b> ·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 솔로몬의 행정 ▶ <b>예루살렘 성전, 왕궁 건축 5장-9:9</b> · 성전 건축 준비와 공사 · 왕궁 건축 공사 · 성전 봉헌식 · 여호와와의 응답 솔로몬의 또 다른 건축 사업 9:10-28	

## Before 줄치며 읽기

아낌없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 After 묵상하기

내 속마음에는  
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로몬>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십중팔구 <지혜>입니다. 그는 전설적인 ‘지혜의 왕’입니다.  
이 레전더리(legendary) 왕에게는 슬프게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 취사선택의 오류② : 희미한 별(faint star)

애굽 공주와의 결혼으로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민첩한 외교적 수완과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반(反)합니다(출 13:17, 신 7:3-4, 17:16).  
부정행위는 금지입니다.

솔로몬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순입니다(3:1).  
‘아직’ 성전을 짓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3:3).  
무엇이 중합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지는 별 사울은 취사선택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뜨는 별 다윗은 절대신앙의 일류가 되었습니다.

절대신앙이 축복입니다. 취사선택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양다리로는 부족합니다. 속마음에는 타락의 씨앗이 있습니다.

##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성서유니온 열왕기  
통성경 길라잡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3:7-9).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3:12).”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축복을 선물하십니다.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은 집권 초기 3년 동안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어려운 국정 과제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지혜로운 통치, 부귀영화, 성전건축, 번창한 국제무역, 국제적인 위상 등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암몬의 길르앗 야베스 침략 사건은,

사울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삼상 11:1-11).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세운 작전은,

다윗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삼상 17:1-54).

한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커지고 커져, 왕에게까지 넘어옵니다.

‘마음의 급소’를 치는 지혜로, 진실을 밝혀냅니다(3:28).

솔로몬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각은 제사장 아사리아,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왕의 벗 사봇입니다.

서기관은 엘리호렙, 아히야, 사관은 여호사밧, 군사령관은 브나야, 지방 관장의 두령은 아사리아입니다.

궁내 대신은 아히살, 노동 감독관은 아도니람, 솔로몬 때 생긴 직책입니다.

열두 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방마다 관장을 두어 다스리게 하고,

지방 관장 두령인 아사리아의 지휘를 받게 합니다(4:1-19).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립니다(4:24-25).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 넓은 마음 덕분에입니다(3:9-12, 4:29).

왕에게 기대하는 단 한 가지의 의무는

그의 아버지 같은,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뿐입니다(3:14).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 두 사랑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지혜’는 ‘왕궁만을 위한 지혜’가 됩니다(4:20, 25, 10:8).

타락의 씨앗이 두 사랑, 두 지혜를 맺습니다. 두 왕국으로 찢는 씨앗입니다.

양다리는 타락의 씨앗입니다. 타락의 열매는 두렵습니다.

‘왕궁’과 ‘성전’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지혜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만’ 사랑하십니까?